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덴마크 DSV사, 화물운송사 시장가치 기준 세계 1위



물류정책·산업동향

1. MGI사, 블록체인으로 화물추적시스템 개선
2. 볼보 자율주행트럭, DFDS사와 항만-내륙 운송 테스트 계획
3. 노스캐롤라이나항, 차세대 항만장비 시뮬레이터 도입
4. 대중국 관세부과로 인한 미 수입 물량 감소, 동안 항로 운임영향 미미

명사 스피치

“BPA는 국내 제조·물류기업의 유럽시장 신규 진출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고 우리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부산항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2019. 6. 19. / BPA-로테르담항만공사 개발협약 체결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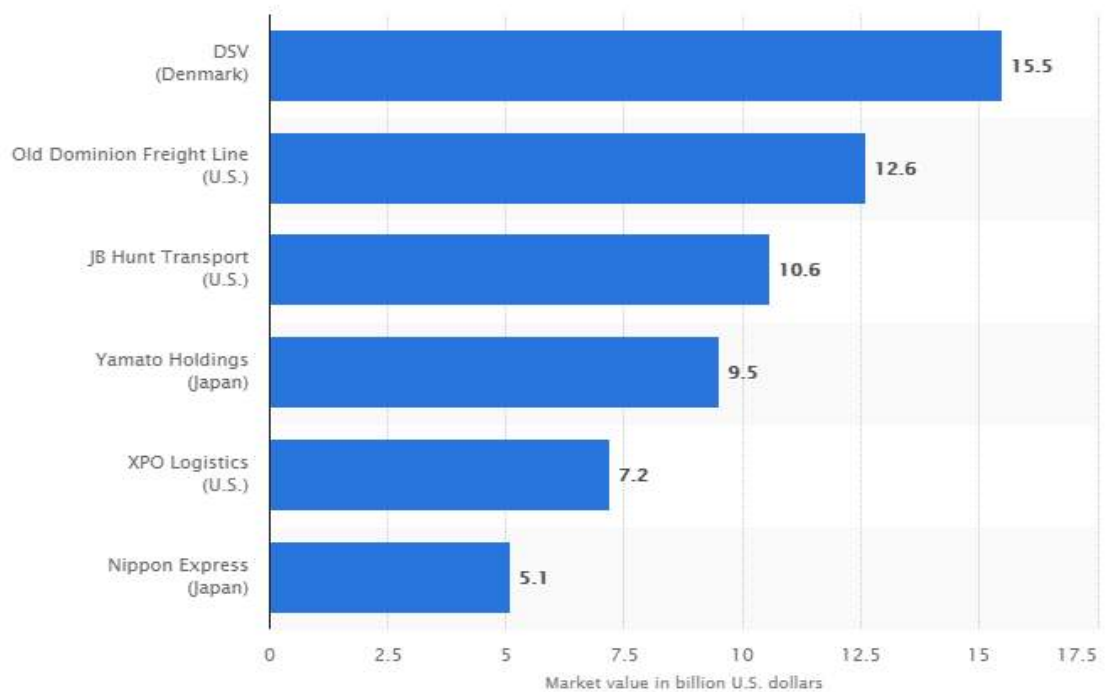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덴마크 DSV사, 화물운송사 시장가치 기준 세계 1위

시장가치 기준 전 세계 상위 6위 화물운송사 (2019년 6월 기준)



자료 : www.statista.com

- 통계정보 제공기업 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화물운송사 중 시장가치 1위 기업은 덴마크계 3자 물류업체 DSV사(155억 달러)로 나타남
 - DSV사는 지난 4월 스위스계 3자물류 및 항공화물 운송업체인 Panalpina사를 46억 달러에 인수·합병한 바 있음
- 2·3·5위는 Old Dominion Freight Line(126억), JB hunt transport(106억), XPO Logistics(72억)로 모두 미국계 화물운송·물류기업임
 - Statista에 따르면 미국 내 화물운송 산업은 2003년 이래 매년 2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화물에 대한 매출 및 기업 수 또한 증가 추세임
- 한편 4·6위는 일본계 기업으로 Yamato Holdings가 95억, Nippon Express가 51억으로 조사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World's largest trucking companies as of June 2019, based on market value (in billion U.S. dollars)", (검색일: 2019.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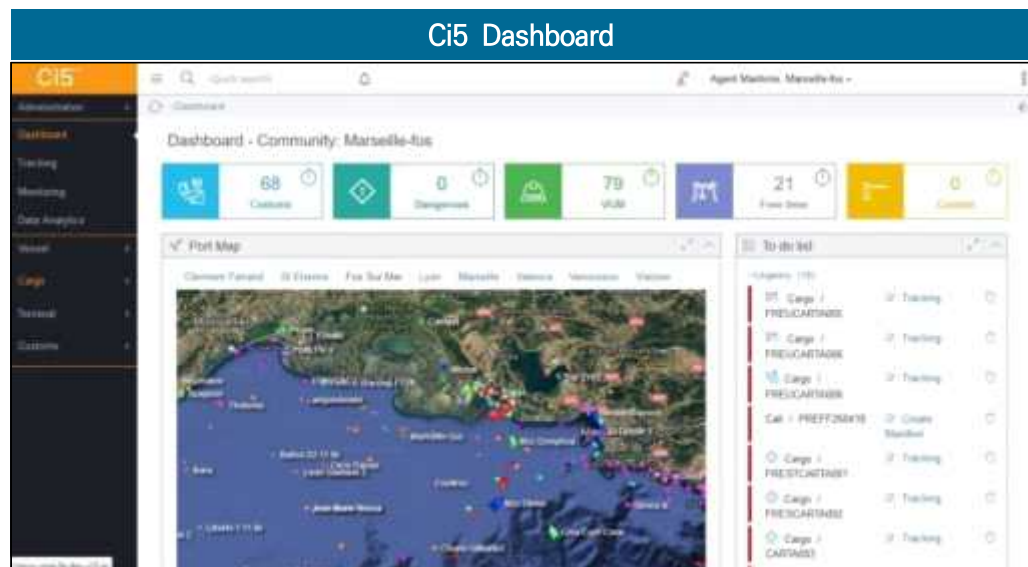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MGI사, 블록체인으로 화물추적시스템 개선

- 데이터 교환 효율화 전문기업인 MGI(Marseille Gyptis International)사는 자사의 Ci5 CCS(Cargo Community System)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발표함
 - MGI의 Ci5는 항만과 공항, 내륙 물류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화물을 추적·관리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 이번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고객들의 화물 검증을 위한 제3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이번 사업은 Ci5 시스템 중 공급사슬 이벤트 발생, 선적/포워드/세관 릴리즈와 같은 주요 이벤트를 검증하기 위한 추적 및 보안 단계의 블록체인 기술로 지능형 화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함
- MGI사는 항공, 우주, 육상운송, 디지털 보안 관련 다국적 기업인 Thales사가 제공하는 전문 기술을 통해 Ci5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
 - MGI사의 Alain Perez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Ci5의 보안 및 추적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Thales사의 Joel Derrien 디지털서비스 부국장도 MGI와 함께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CCS가 데이터의 보안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고 원활한 협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함



자료 : Container News, <https://container-news.com/ci5-coming-marseille-fos/>, 2018.10.1.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MGI Reveals Blockchain Upgrade to Cargo Solution/ 2019.06.14.
Container News, <https://container-news.com/ci5-coming-marseille-fos/> 2019.06.14.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볼보 자율주행트럭, DFDS사와 항만-내륙 운송 테스트 계획

- DFDS사는 덴마크의 국제 해운·물류회사로, 유럽과 터키 등지에 교통·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DFDS사는 연 수입이 약 25억 달러에 이릅니다
 - 약 20개국에 8,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볼보트럭(Volvo Trucks)은 2018년 컨넥티드·자율주행 솔루션인 베라(Vera)를 발표함
 - 베라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컨넥티드·자율주행차량임
 - 이는 물류센터나 공장, 항만 내의 반복적인 운송작업을 위해 개발됨
 - 또한, 단거리·대량운송에 특화되어 있음



볼보트럭의 베라

자료 : <https://www.pcmag.com/news/369021/sorry-truckers-volvos-autonomous-vehicles-can-handle-it-fr> (2019.06.16.)

- DFDS사와 볼보트럭은 베라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협업을 계획함
 - DFDS사와 볼보트럭은 베라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물류센터와 스웨덴 고텐부르크(Gothenburg)항 간 운송 테스트를 계획함
 - 이는 막힘없는 물류 흐름을 실현하여 물류 효율성, 유연성 및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미리 정해진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베라 차량들은 컨트롤 타워에 의해 모니터링 되며, 최대 시속 40km/h로 주행함
 - 인프라와의 연계도 협업의 일부이며, 이는 항만 터미널 자동화 게이트와의 연계를 포함함

참고자료 : <https://www.roboticsbusinessreview.com/regional/volvo-trucks-puts-self-driving-vera-to-work-transporting-goods/> 2019.06.16.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노스캐롤라이나항, 차세대 항만장비 시뮬레이터 도입

- 노스캐롤라이나항(North Carolina Ports; NPC)은 항만 운영자가 화물의 취급 준비와 항만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Vortex 항만장비 시뮬레이터 도입을 발표함
 - 2019년 5월, 노스캐롤라이나항에 도입된 CM Labs Simulation의 새로운 교육 시뮬레이터는 리치 스택커와 STS(ship-to-shore) 크레인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함
 - NPC는 모어헤드 시티(Morehead City)와 윌밍턴(Wilmington)에 구축된 시설에서 시간당 40회 이상의 생산성을 보유, 미국 동부해안에서 크레인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
 -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 운영자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해 네오 파나막스급 크레인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임
- CM Labs의 Seka Kouladjian 생산관리자는 실제상황 운영 시나리오와 모범사례 지침이 동시에 제공되는 다중감각적 경험(Multisensory Experience)이 실제 장비교육만 제공되는 기존 교육보다 효과가 더욱 높다고 언급함
 - 시뮬레이터는 기계적인 움직임과 진동은 모션 플랫폼을 사용하여 렌더링되며, 장비 및 환경에서 발생하는 음향효과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에서 제공함
 - 강사가 교육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관찰이 가능하며 결함 및 기상 조건을 입력하고, 교육생의 성과에 대한 사후검토가 가능한 Instructor Operation Station(IOS)을 제공함
 - 또한 IOS를 통해 관리자와 강사가 목표로 하는 운영 특성에 맞게 내장된 채점시스템의 커스트 마이징이 가능하여 자체적인 벤치마크 수립이 가능함
 - 더욱이 핫스왑이 가능한 제어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시뮬레이터에서 STS 크레인, 지게차, RTGC, 모바일 하버 크레인, 리치 스택커 등 항만의 모든 장비를 구현할 수 있음
- NPC의 Brain E. Clark 최고 운영 책임자는 CM Labs의 차세대 항만장비 시뮬레이터의 도입이 NPC의 장기적인 개선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언급함
 - NPC 터미널의 역동적인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운영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안전성, 속도,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항만장비 시뮬레이터가 항만 운영을 위한 중요한 교육 수단이며, 직원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화물처리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A.P. Moller-Maersk의 Vincent Clerc CCO는 자사의 전략 핵심은 고객의 사업수행 용이성 증대와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의 가시성 제공이며, TradeLens 플랫폼에 운송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 걸친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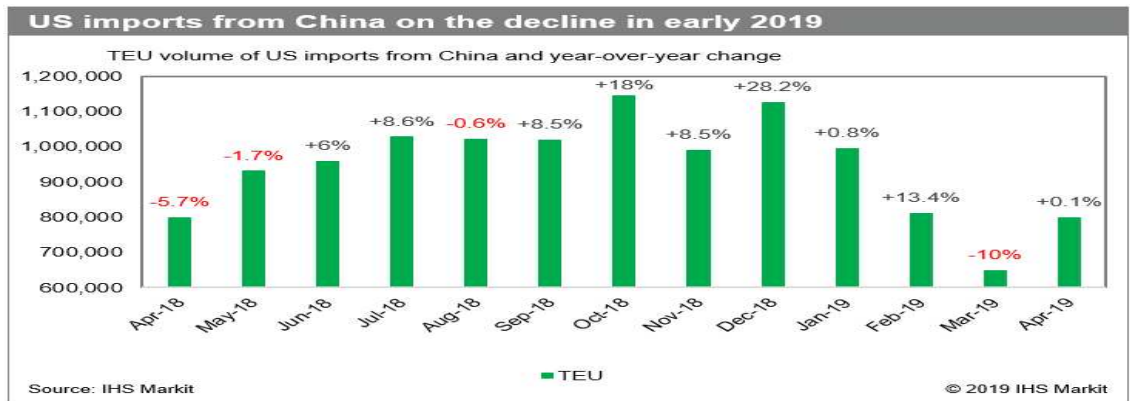
■ 참고자료 : <https://www.drybulkmagazine.com/> 2019.6.19.

이기열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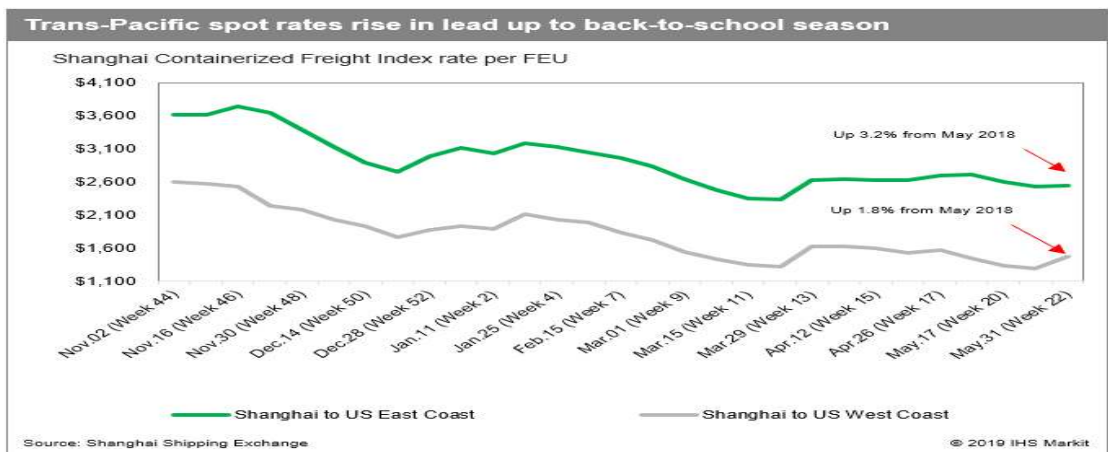
051-797-4670, kylee@kmi.re.kr

대중국 관세부과로 인한 미 수입 물량 감소, 동안 항로 운임영향 미미

- 3분기 대중국 수입물량,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가 전망됨
 - 2019년 4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함
 - IHS Markit은 성수기인 3분기에 대중국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일반적으로 현재의 수입물량이 2~3개월 전에 계획된 것을 감안하면, 5월 25% 관세 인상이 확정된 이후 계획된 수입물량은 3분기 초에 운송될 예정임



- 동안 항로 운임은 수입물량 감소 전망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미국 최대 항로인 동안 항로 운임은 시차를 두고 운송물량과 동조성을 보여 왔음
 - 2018년 후반과 2019년 초, 미국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선사들은 선박재배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운임을 유지할 수 있었음
 - JOC Logistics and Pricing Hub에 따르면 운임은 5, 6월에도 상승할 전망임



- 따라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운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www.joc.com 2019.6.5.